

미국제 86회 회의 개회

주목되는 미컨트리재

(와싱턴 1월 27일 발) 미컨트리 제 86회 회의는 모든 열려
 는데 공화당의 지도자와 민권도서에 관해서 2재가 시작
 되었다. 개회예발서 공화당의 상원의원들이 감부회를 열고
 동양원내총무로서, 그 대우트 상원의원의 지지자인, 에와렛트
 M. 다크는 지명을 받았고
 또한 편 하원에서는 과거 20년간에 걸쳐, 당의 지도자로 있던
 1 조서 W. 마틴의 지명을 둘러싸고 인디애나 주 출신의 찰스 A.
 할라크 씨가 지명을 받았다. 이로써 당은 완전히 두 갈래로
 나누어졌다.

민주당의 하원에서는 새버 레버먼 씨 (버몬트) 레사스주
 출신)가 여전히 투표를 받을 장악하고 있다. 레버먼 씨는
 누구보다도 의당의 차이는 오래 지속하고 있는데 어제의 감부
 회의에서 재차 선출되어 9회재의 2년간의 의장자리가
 맡게 되었다. 아치가 당에서 동역은 지명, 한데 불과하지 않다
 현재 회의내에 있어서의 민주당의 합동선거 세력으로서 보아
 의회에 거의 임명은 형식적이거나 작거나 한 것이다. 민주당의
 상원에 있는, 텍사스 주의, 린든, 볼슨 씨가 1933년 이래
 계속하여, 지도권을 잡게 되었다.

이사방해대책

공화 민주당 양당 상원의원들은 당이 추르트는 가치가 연기되리라
 고 믿고 있으며, 특히 루프렌에 대한 연방의 보호를 대하는 큰
 도의에 대한 이사방해연설을 여러 번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민주당원내총무, 린든, 볼슨 씨는 본래의 이사방해연설을 억제
 도의에 대한 다수결에 대해 해의 새로운 추추을 단을 이루고 있다
 또한 민주당의 제정된 것이다. 볼슨은 연내, 의회(출신) 유권자의
 1933년 1월 27일, 1933년 1월 27일, 1933년 1월 27일, 1933년 1월 27일
 사원전회의 3분기의 도정은, 1933년 1월 27일, 1933년 1월 27일



하와이 입주안제출

「버니스」씨 통과를 확신

(와싱턴 7일발 에이피) 루트권을 갖지 않는 단화나의 국회 대의사의 하와이의 「썬·A·버니스」씨는 오늘 2년의 입지가 끝날 때까지는 하와이의 입주가 실현되고 국회의원은 하와이에서 보내는 상원의원이 2명 하원의원이 2명 각각 1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버니스」 대의사는 하와이 입주법안을 51-2주는 상주하여 이미 「H.R. 51」이라고 불리고 하원내무위원회의 심의를 그대로 상정하였다. 또 「버니스」씨는 「행법」 하원위원의 공화당위원이 중무척임은 하와이 입주 실현에 아무런 영향을 가지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미공약 소련부수상

미국 각지를 시찰 여행

(코리-브랜드 7일발 에이피) 크레투린의 제2지도자인 「미공약」 소련 부수상은 7일 「코리-브랜드」에 도착하여 2주안에 예정된 미국-시찰여행을 시작하였다. 비행기에서 내린 동씨는 2주후로 삼키-경관의 행정사를 만나 비행장 입구에서 정본 기자화면을 하였다. 비행장에는 500백명의 국수주의자들이 「미공약」 씨를 보고 있었다.

「코리-브랜드」의 시찰법가 「이-론」 씨 부하가 영접하고 동부인의 루영으로 「미공약」씨는 소련어로 말을 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한 후 7시 50세의 「이-론」 씨에게 「노자를 쓰지 않으면 감기를 드십시오」라고 말하였다.

태평양주보애독자에게 드리는 말씀

동주보의 발전은 귀회부 음으로 양으로 원조하여 주신 애독자에게 새해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 인사를 전합니다. 금년초에 동주보가 인재를



(3명의 계수)

고장으로 날마다와 공내의 인내를 관이 다분간 불가능하게 되었사옵
기에 불을 미하나와 속사판을 이용하여 세계 구내 지방소식을 전해
드리갓신은 나 너의 용의 하시고 공전과 같은 사랑으로 주보른 애두
하여 주시기를 바라나지 안습나와

태평양주보사 백

아후리카의 벨기식민지수도에 대폭동발생. 사상자 백삼십四名 죽사 두리번을 이루

(레오폴드빌 - 원초일발에 이치) 아후리카의 벨기식민지
「공공」의 수도 「레오폴드빌」에서 이러나 폭동은 때때로 드일간
삼십명의 사망자와 백백명의 주상자가 발생하였다고 보도
되고있다. 상정에는 방화는 하고 「캐트릭」 교회도 약탈을
당하고 학교와 경찰소는 재로 변하였나 구라파인들은
동맹이네 일이 많고 교회관계자는 현지에 폭행을 당하였다
사망자의 수는 경관에 사살당한 아후리카인의 수가 두들이다
현재는 계엄령이 선포되어 기관총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을 다고 아후리카인 지구를 순찰하고 있다.

계엄령이 각처에 처지고 구라파인들에는 무기가 배부되고 있다.
레오폴드빌 주위의 도로는 봉쇄되고 있다.

폭동은 일일일오오오에 발생하여 코일라너에도 추수리가
여전히 계도의 있다. 사건의 시초는 어느 회합선상에 서
의 장래에 있어서의 무리분쟁과 토의되었는데 침입한
사람들이 그 시 두리번을 다말하고 의치고 대거포의 포도
변하여 두로에 강어포를 노코 구라파인들에 유언하
자동차에 폭탄을 던지고 폭격하여 해치른 채 한가지이다



(아후리카의 대포동 발생 계수)

아후리카인들이 이리 권이 동으로는 급속히 드물기 때문에
퍼져 히라바인과 동족인 이들이 경영하는 신정교를 습격
하여 물품들을 약탈한 후 방화하였다 최근 5.6회에
걸쳐서 전은 소등은 있었으나 이번의 동족은 제2차대전
이래 최악의 소도이다.

레오폴드빌은 30만여 아후리카인 주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 임점한 불려서 시면지가 자치정부들 가진 것에 신정교
정치적 영향을 받고 있느냐 벨기 정부는 아후리카인의
정보에 대한 발언을 잠시 억제하고 있느냐

이회를 해산 자위선거를 실행 쿠바 임시정부 조치

(하바나 1월 2일 발에이 피) 쿠바 임시정부의 첫일 발표
의하면 정부는 의회와 법적법적응을 해산하고 자위선거가
진행될 때까지 법령에 의해서 통치하기로 하였다 동결
마나엘 우리치마 대리 대통령과 각료들이 한 것이다

우리치마 씨는 어제 하바나에 도착하자마자 다음의
에 걸친 명령을 발표하였다
- 하바나 변호사 회장 호세 갈도나 씨를 수상에 임명한다
- 금후 18개월로부터 2년의 사이에 자위선거를 해한다
- 우리치마 내각의 투의
- 계엄령 폐지와 임시정부의 하바나 지구구본부가
한 외출금지령은 재거한다

시크의 국가방역사

四백九의 불로 추사



(와시온 1월 2일 발에이 피) 아이젠 하워 대통령은 코일 야당의
의회수피회 회담 정부에 대한 모간에 대해서 설명하였는데
신 회계년도) 모든 는 한 내년 1월 1일까지)의 국방예산은
약 4백9의 불로 추사한다 하고 한다 이것은 현 회계년도의
국방예산보다 1이 이상 차액 있는데, 이는 민주당 의원내각
를 위시하여 민주당은 회상부에서 국방비와 시설비가
극히 적다코 말하고 있다

(신년도 국방예산 제소)

남은 부통령, 딜레스, 국무장관도 참가하여 2시간만에 걸쳐 회담의 내용은 공포되지 않았으나, 국방예산의 수자는 와이라, 상원의원(공화당)이 키리달에게 발표할 것이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오는 19일 의회에 예산고서를 보낼 예정이다. 각 조의 지출 계획의 상세한 것은 동고서에 의해서 명백히 될 것이다. 작년만경 정부는 신년계획도의 (국)형예산 초안으로 약 7백70억부를 예산하고 있었다.

대외원조비 30억의 분

또 신년계획도의 대외원조비로서 정부는 약 30억부를 유류 하리라고 와이라 상원의원은 말하고 있다. 이것은 금년도의 예산과 거꾸로 되어 있다.

지방소식

월하.정여사 마키키자택에서 피살

지난 정월 초하루 새벽에 루나리코와 피코이. 글루에사는 월하.정여사가 회한에 의해서 피살당하였다.

치안관인 월하.정여사는 61세로 전신을 구타당하고 피살당한 것으로 판명되었는데 시체해부에는 이상없었다.

정여사는 할인마의 피고의 신자로 정초의 새벽에 배를 타고 리베도리온후에 피살당한 것이다. 범인은 치안관의 유리창을 깨고 침입하여 범행은 기한가운데 동내사람들은 이

살인을 전혀 몰랐다고 하며, 경찰에서는 이거슨 초하루 새벽의 피살. 허리는 소의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부동산 소유자로 알려져 있는 정여사는 와이키키의 마이리호텔로 소유하고 있던 본인이다. 호노룰루 경찰관에게는 비문의

수사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활동 중이나 아직 아무런 단서도 없을 것 같다고 한다.



외국인주소등록 1월중예 할거스

외국인의 주소등록은 1953년에 제정된 이민기화법에 의하여 매년 1월에 거행되는데, 올해에는 2백912만 3천명이 등록하리라고, 슈렛츠 이민기화국장인 추산하고 있다. 이 등록의 무로 부리의 재의되는 외국인은 외교관, 외국어 가입하고 있는 국제단체(국련등)의 대표자, 농업노동자로서 일시 입국허가를 받은 자등이며, 그외의 외국인은 전부 등록하지 않으면 안된다. 등록에 이서서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영주권이 있는 귀화하지 않은 외국인은 물론, 일시 이민국자 도 이에 해당된다. 근처의 우편국이나 이민국에서 등록 카드를 받아서, 국적의 사실은 기입한 후, 국원에게 직권 주지만 하면 안된다. 우송은 국외의 여이다. 14세 이하의 아해들에는 부모나 법륜인으로 정해진 보호자가 수속을 할지만 하면 안된다. 병으로 말미암아 등록과 관련된 가질러 하지만 하면 안된다. 친지나 친척에 부탁하여 가려다 기입 하지만 하면 안된다.

이민자는 2백만 이하의 범을 31일까지 감옥형을 받는데, 이에 국외의 거명령을 받은 경우도 있다. 당시의 이민규정, 슈렛츠씨는 한미에 사는 자에게는 5만 3천 911명이 등록하였다고 말하고 새로 이민국한 외국인의 수로는 귀화한 수에 상응하여 큰 변화는 없다고 보고 있다.

동지회주요부원인 등록에 불평을 느끼는 노년층은 이하의 등록규정을 가려다가 드와 드리고 이스나 등록에 등록을 받고 하는 한민은 외국인 등록규정을 가리고 동지회주요부원인 직권내외의 기록을 바란다고 한다.

서태리역사 수록환으로 변경세

동지회회원이며 호신부원인이고 서태리천씨의 부인 서태리 여사는 수록환으로 오대동안 자태에 이와 병원에의 차근차근이던바, 병약이 무효로 작년 12월 23일에 애서가 히게도 변경세하셔사. 이반 호신부원인 서태리역사의 호신금을 지급시 필립한도 등록이외고 있다.



리범녕선생내행

재작년에 환국하여 서울에서 시인은 우리 이문만이 잘 아는 리범녕선생은 한국 서울 학회의 대표고회와 근대에 서울에서 창립된 동기회 양단체의 대표원이 자격으로 금월 호도루에서 개최되는 양단체 연례대표대회에 참석할하르 지난 구월에 내한 하였다고 한다

유항의등교회 목사주력전축기부금 한천구백여불에 도달

一九五九年二月四일 주일 아침 예배후 호항지방 대한인 기독교교회 평신도회가 신임 평신도회장 데이빗 남씨에서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목사주력전축기부금의 결과 전축액이 두만천구백여불로 낙찰을 되었다는 보고가 있사구 이 목사주력전축을 위해서 낙찰된 그 금액을 지불하여 전축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는데 다음일까지 보집된 기부금은 한천구백여불에 도달한다고 한다

一九五九年도 교회예결산안 통과

二月十一일 아침 예배후 평신도회회장과 데이빗 남씨에서 사회로 시작 된 호항지방 대한인 기독교교회 평신도회에서 一九五九年도 교회예결산안으로 한천구백여불이 제출되어 동의를 하였는데 동액은 교회에게 보람하기로 결의되었다 한다

남해호 기항

한국으로부터 뒤유르향하든 대한민구가 화를선 남해호는 도주공 기간의 모공으로 금월八일 상오十二시에 분항 제트기선 상에 정박하였는데 동기회중앙부 부인구제회중앙부 한인구목교 교회 프당체 예산을 선원들은 축하하여 한바탕으로 환영반찬회를 준비하였는데 기관수리가 예정보다 일찍이 끝난 일일 정오에 동해호선이 출발하여 한영회가 주력되었다고 한다

안시흥부사 연례대표회차입기차 내안



감사문

저희들의 모친(서매리 여사)께서 수환으로 오래동안 신고하시다가 작년 12월 23일에 별세하시매 천지가 아득하여 어머니의 장례법절은 못하고 창환중 원근각처에서 고인의 친지들이 장의사에게 아음다운 화환과 조의금까지 보내주시고 장례에 관한 일일절은 드워 주신데 대해 허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런일히 창이 되었음고 이사를 올리지 못하고 태평양 주부의 일리는 빌려 감사의 말씀을 물리게 된 것은 예의가 아쉽고 알면서 이리 인사드리고 생제들의 고충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一九五九年一月三十日

고서매리 여사의 자녀 일동

동지회 주말 재초보다

◎년례금

- 호항 서학사 10원 리계선 10원 김정영 10원 김광재 10원
- 리범석 10원 리성수 10원 김항수 10원 조상린 10원
- 오춘화 10원 김재선 10원 김민주 10원 김치연 10원
- 김인서 10원 문태임 5원 문매리 5원 서대천 5원
- 전점수 5원 윤위분 5원 신연석 5원 김마르다 5원
- 릴리하 고보주 10원 공숙진안 5원
- 와일루아 최만흥 10원 ○와히아와 전승근 10원

◎주보대금

- 호항 김치연 10원 신과선 10원 최관호 10원 조상린 10원
- 김연주 10원 오춘화 10원 전점수 10원
- 릴리하 고보주 10원 공숙진안 10원
- 와히아와 최대불 10원 전승근 10원
- 로마 김영리공사 10원 ○와일루아 최만흥 10원

◎주보사특연금

- 고요한 10원 고보주 5원 조상린 5원 최만흥 5원

◎저리보금

- 호항 서학사 2원 서대천 2원 문태임 2원 문매리 2원
- 리계선 2원 김정영 2원 김광재 2원 신연석 2원
- 타구세별 2원 리상증 2원 김항수 2원 김마르다 2원



(제九면세 예수)

민선호 二元 오윤화 二元 김재선 三元 김민규 二元
 김민서 二元
 리리하 고봉주 二元 공숙진만 二元 리재연 二元
 와일루카 최만흥 二元 가와이 리병두 二元
 라서 김창봉 二元

◎년례금

호항 김민규 十元 김진형 十元 안학선 十元 안드현 十元
 한경선 十元 리정근 十元 한장춘 十元 김복돌 十元
 김매리 五元 안영순 五元 리민연 五元 김복순 五元
 김또라 五元 정근엽 五元 김수찬 五元 (五元은)
 리리하 신호시 五元 채소금 五元 지영희 五元 배천례 五元
 개포린쿠 한리운 十元 한삼달 十元 가이두끼 김찬제 十元
 할로 안시흡 十元

◎주보대금

호항 민의식 七元 김기형 十元
 리리하 지영희 十元

◎주보사트(연)

개포린쿠 한리운 十元

◎적립금

호항 서복순 二元 김진형 三元 김매리 二元 리민연 二元
 김복돌 二元 안학선 二元 안영순 二元 안도현 二元
 정근엽 二元 한경선 二元 김또라 二元 리정근 二元
 한장춘 二元 조상린 二元 황원태 二元 리성수 二元
 김연규 二元
 리리하 신호시 二元 지영희 二元 채소금 二元 배천례 二元
 개포린쿠 백영규 二元 한리운 二元
 힐로 안시흡 二元 한삼달 二元
 가이두끼 김찬제 二元

